

보도자료

2022년 9월 28일 목포 2022 - 40호
이 자료는 9월 29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9월 28일 12: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보고서(2022년 3/4분기)

- 한국은행 목포본부(본부장 홍철)는 8~9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업체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경제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 목포시,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업체 및 유관기관 대상 방문·서면 조사, 경제동향간담회 등
- **2022년 3/4분기중 전남 서남권** 경기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업황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업 업황이 회복**되고 **소비도 증가**
 - 다만 7~8월중 **수출**은 선박 인도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4.6% 감소**
- 7~8월중 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석유류(+31.5%), 농산물(+7.8%)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상승**하였으며, **생활물가***도 **8.3% 상승**
 -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
- 7~8월중 **목포·무안지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 둔화 등으로 **보합** 수준을 유지
- 향후 **지역 경기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력확보의 어려움, 높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 상승**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한편, **전남지역은 쌀 공급과잉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해 **쌀 가격 급락**에 따른 **산지 유통업체들의 손실 및 수확기 신곡 매입여력 상실, 농가소득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문의처: 한국은행 목포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임성운

Tel: (061)241-1122 Fax: (061)242-1189 E-mail: mokpo@bok.or.kr

한국은행 목포본부의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bok.or.kr/mokpo>)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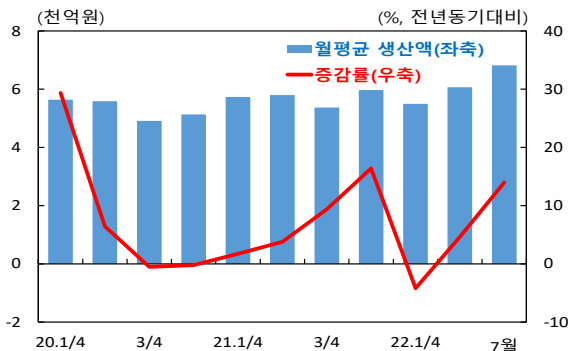
2022.3/4분기 전남 서남권 지역경제보고서

-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8~9월중 전남 서남부지역 소재 주요 업체·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 3/4분기 지역 경기는 조선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업황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관광객 및 휴가철 관련 물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황이 회복
 - 향후 지역 경기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확보 어려움, 높은 원자재가격 및 금리 상승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1. 제조업 업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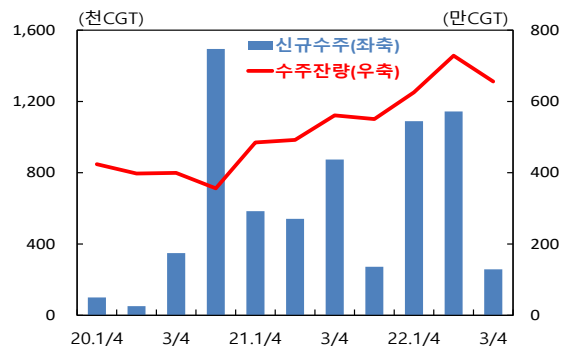
- 제조업은 주력산업인 조선업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이 지속
 - 3/4분기 중 주요 조선업체의 선박 신규 수주물량*이 줄어들었으나 2020.4/4분기 이후 수주한 물량**의 건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생산이 증가
- *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신규 수주(천CGT, 전년동기대비 %)
: 2022.1/4분기 1,089(+86.5%) → 2/4분기 1,144(+111.3%) → 3/4분기 258(-70.5%)
- ** 2022.8월말 기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수주잔량은 659만CGT로 향후 3~4년 간의 조업물량을 확보

전남 서남권 주요 제조업체¹⁾ 생산액



주: 1) 대불산단 입주업체, 관내 주요 조선업체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관내 주요 조선업체

전남 서남권 조선업¹⁾ 수주 현황



주: 1)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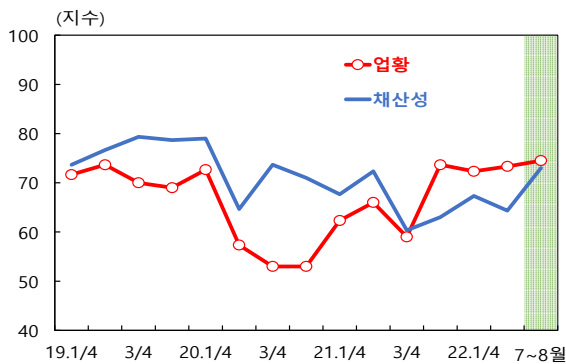
□ 지역 내 주요 제조업체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위 항목인 **채산성 지표도 회복**되는 모습

○ 금년 상반기까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조선업체의 수익성이 좋지 않았으나 3/4분기 이후 그동안 높아진 원자재가격을 반영*한 선박 수주 물량이 건조**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점차 개선**

*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newbuilding price index)는 전세계 선박의 신규계약가격 평균을 지수화한 것으로 1988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상대적인 가격을 비교
 : 2021.1/4분기 130 → 2/4분기 139 → 3/4분기 151 → 4/4분기 154
 → 2022.1/4분기 156 → 2/4분기 162 → 3/4분기 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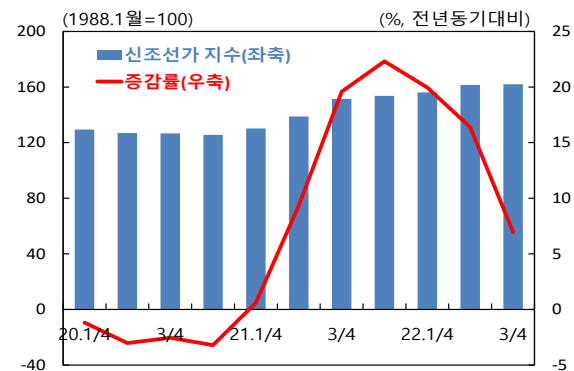
** 조선업은 선박수주 → 설계 → 건조 → 인도에 통상 2~3년 소요

전남 서남권 제조업 BSI¹⁾



주: 1) 기간중 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자료: Clarkson

□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 및 투자**는 선박 수주물량을 단계적으로 건조함에 따라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 부족에 따른 공정 지연, 세계 경기둔화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은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조선업의 경우 높은 선가로 계약한 수주물량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확보 및 인건비 상승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

* 금년 7~8월중 전남 서남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인력난·인건비상승'으로 응답한 비중은 39.2%로 2022.1/4분기 26.6%, 2/4분기 32.2%를 상회

2. 서비스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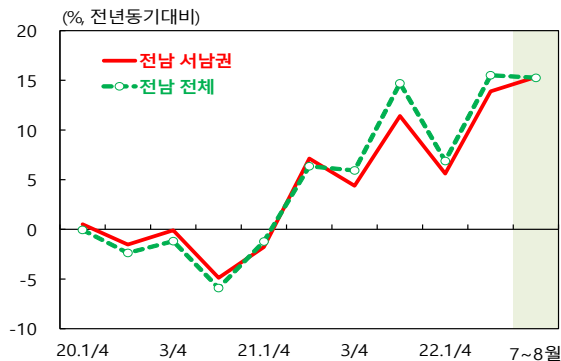
□ 서비스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나고 관광객 및 휴가철 관련 물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황이 회복**

○ 7~8월중 지역 내 서비스업체 카드 결제액*은 전년동기대비 15.3% 증가하여 2/4분기(+13.9%)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

* 전남 서남권 지역 내 서비스 업체에서 신한·하나카드로 결제된 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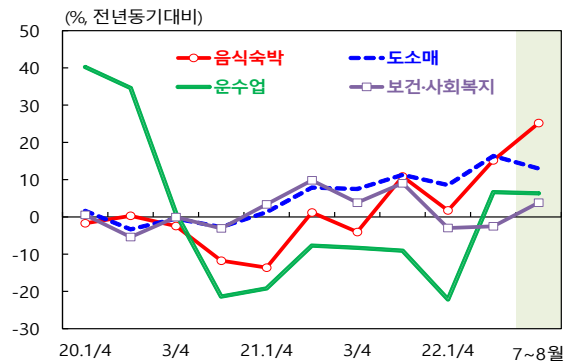
—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25.2%), 도소매업(+13.0%), 운수업(+6.3%)의 매출이 증가

전남 서남권 서비스업체 신용카드¹⁾ 매출



주: 1) 신한카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기준
자료: 신한카드社, 하나카드社

전남 서남권 업종별 신용카드¹⁾ 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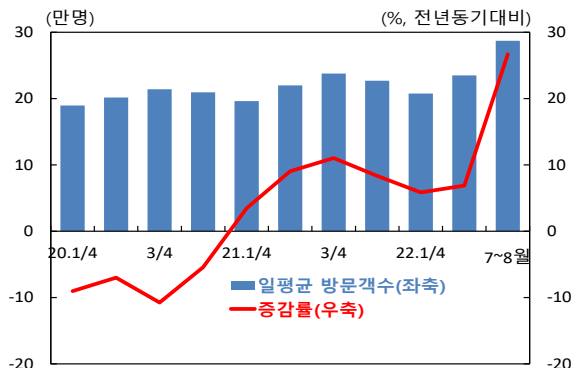


주: 1) 신한카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기준
자료: 신한카드社, 하나카드社

○ 7~8월중 일평균 지역 방문객수*는 28.7만명으로 전년동기(22.7만명)대비 26.7% 증가하였으며, 지역 내 비제조업의 업황과 채산성도 회복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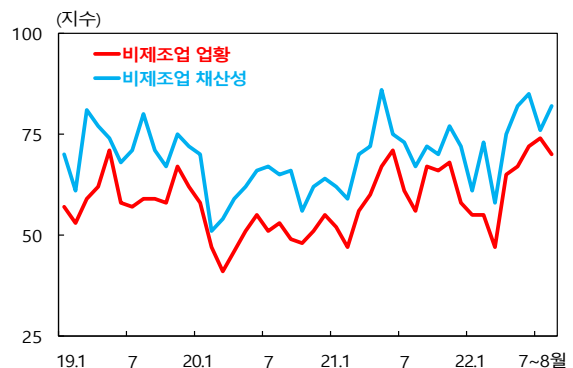
* 한국관광공사에서 작성하는 관광데이터로 거주, 통근 등 일상생활권을 벗어나 관광 목적으로 한 장소에 일정시간이상 체류한 사람을 의미하며 모바일데이터를 바탕으로 추계

전남 서남권 일평균 지역 방문객 수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데이터랩

전남 서남권 비제조업 BSI¹⁾



자료: 한국은행 목포본부

- 다만 **부동산업**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분양시기를 늦추는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매수심리 위축으로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업황이 부진**

* 전남 서남권 주택거래량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 2020년 +54.0 → 2021년 -9.8 → 2022.1/4분기 -6.6 → 2/4분기 +7.1 → 7월 -21.8

-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업황**은 관광객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

- 과거 코로나19 확산 시 개인·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단체 관광객들도 증가하면서 **여행·운수업의 업황은 개선**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활동 증가 등으로 일상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소비심리도 회복**할 전망

* 국내선 항공운임이 상승하고 제주도 내 렌터카 총량제가 연장됨에 따라 자차를 이용하여 제주도를 여행하려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목포~제주, 진도~제주, 해남~제주, 완도~제주 노선의 선박 이용객들이 증가

- 다만 **원자재가격** 및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수익성이 저하될 우려

3. 수요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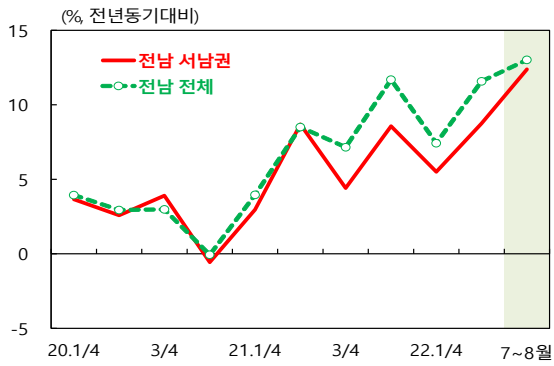
-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쇼핑·외식 등 대면활동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개선**

- 7~8월중 **지역 내 개인카드 사용액***은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여 2/4분기(+8.7%)에 이어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7월중 **지역 내 주요 소매점** 매출**은 677억원으로 전년동월(642억원)대비 **5.6% 증가**

* 전남 서남부지역 내 신한·하나카드의 개인회원 결제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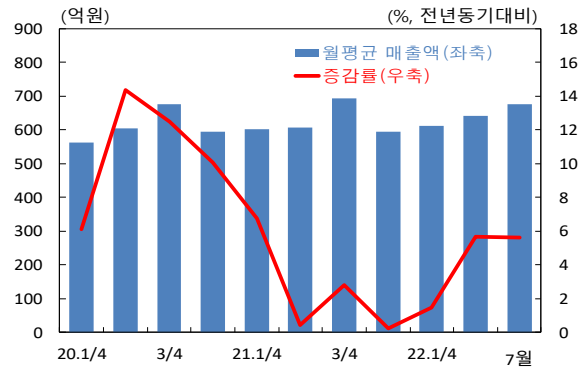
** 하나로마트·이마트·홈플러스 목포점, 롯데마트 목포 및 남악점, 전남 서남권 8개군 하나로마트 및 슈퍼마켓

전남 서남권 개인 신용카드¹⁾ 지출



주: 1) 신한카드,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기준
 자료: 신한카드社, 하나카드社

전남 서남권 주요 소매점¹⁾ 매출액



주: 1) 하나로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목포점, 롯데마트 목포 및 남악점, 8개군 하나로마트 및 슈퍼마켓
 자료: 관내 주요 소매점

- 향후 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상황이 유지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물가 및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경우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될 우려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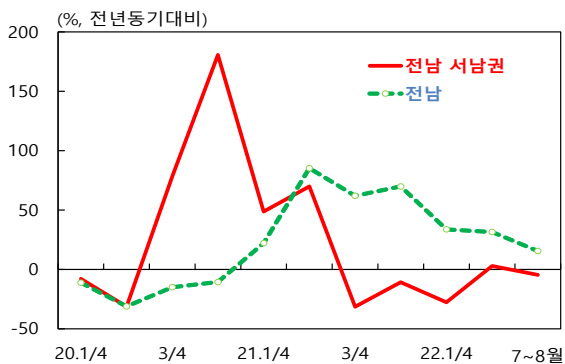
- 수출은 3/4분기 선박 인도물량이 줄어들면서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4/4분기 예정된 선박 인도 물량을 감안할 경우 향후 증가할 전망

○ 7~8월중 수출액*은 7.3억달러로 전년동기(7.6억달러)대비 4.6% 감소

* 선박(억달러) : 2021.7~8월 6.8 → 2022.7~8월 6.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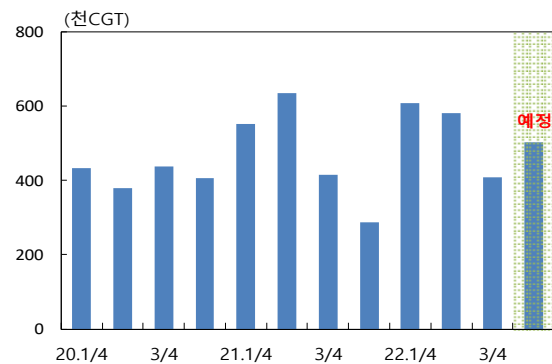
** 농림수산물(억달러) : 2021.7~8월 0.5 → 2022.7~8월 0.4(-32.2%)

전남 서남권 총수출액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전남 서남권 조선업¹⁾ 인도 물량



주: 1) 현대삼호중공업 및 대한조선
 자료: Clarkson

4. 물가 및 부동산 가격 동향

- 7~8월중 전남지역의 **소비자물가**는 오름세가 **확대**
(22.2/4분기 전년동기대비 +6.3% → 7~8월 +6.9%)
 - **상품물가**는 **석유류(+31.5%)**, **가공식품(+8.3%)** 등을 중심으로 공업제품의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농산물 가격* (+7.8%)** 및 **전기·가스·수도요금** (+15.7%)**이 크게 오르면서 전년동기대비 **9.2%** 상승
 - * 폭염, 장마 등 기상 여건 악화로 농산물 출하량이 급감하면서 배추(+67.1%), 호박(+72.9%), 오이(+61.9%) 등 채소류(+23.4%) 물가가 큰 폭 상승
 - ** 한국전력은 3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당 5원 인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5월에 이어 7월에도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추가 인상(+1.11원/MJ)
 - **서비스 물가**는 외식을 중심으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4.3%** 상승
 - **생활물가***는 전년동기대비 **8.3%** 상승
 -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물가지수
- 7~8월중 **목포·무안지역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은 대출금리 상승 및 부동산 경기둔화 등으로 **보합** 수준을 유지
 - 향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실시될 경우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할 수 있겠으나,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증가할 경우 부동산 시장 업황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

전남 소비자물가 및 목포·무안지역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률¹⁾

(%)

	2020년		2021년		2022년			7~8월
	4/4	1/4	2/4	3/4	4/4	1/4	2/4	
소비자물가 총지수	0.4	1.2	2.6	2.6	4.0	4.1	6.3	6.9
상품	0.5	1.2	3.4	3.2	5.0	5.3	8.7	9.2
- 농축수산물	9.7	11.5	9.5	3.7	4.3	2.1	3.0	5.9
(농산물)	13.9	16.3	14.2	1.3	1.4	-0.3	-0.1	7.8
(채소류)	9.4	13.2	11.5	-9.4	0.0	-3.1	1.3	23.4
(축산물)	8.1	11.3	10.4	11.2	12.8	8.4	8.7	5.0
(수산물)	2.6	1.2	-1.7	-1.4	-1.2	-1.4	1.7	2.9
- 공업제품	-1.5	-0.7	2.5	3.3	5.5	6.3	10.2	9.5
(가공식품)	1.6	1.2	0.9	1.6	3.4	5.3	7.9	8.3
(석유류)	-13.5	-5.7	17.4	20.8	28.8	23.7	38.7	31.5
- 전기·가스·수도	-2.9	-4.2	-4.2	0.1	1.6	3.1	8.9	15.6
서비스	0.3	1.3	1.8	2.0	2.8	2.8	3.5	4.3
- 집세	0.2	0.3	0.5	0.7	0.9	1.1	1.1	1.2
- 공공서비스	-2.2	0.4	0.7	0.7	3.0	0.5	0.6	1.0
- 개인서비스	1.3	1.8	2.5	2.7	3.0	4.1	5.1	6.2
(외식)	1.6	2.0	2.6	2.8	3.5	5.2	7.4	9.4
(외식 제외)	1.1	1.8	2.4	2.7	2.7	3.2	3.5	4.0
생활물가지수	-0.2	1.3	3.4	3.4	5.4	4.7	7.6	8.3
주택매매가격								
(목 포)	-0.3	-0.6	0.6	1.1	0.5	0.3	0.2	0.0
(무 안)	0.0	0.5	0.7	1.1	1.5	0.5	0.6	0.1
주택전세가격								
(목 포)	-0.2	-0.4	0.0	0.4	0.3	0.3	0.3	0.0
(무 안)	-0.1	0.0	0.0	0.5	0.7	0.4	0.4	0.0

주: 1)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주택매매·전세가격은 전기말월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전남지역, 쌀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 확대

본 자료는 한국은행 목포본부에서 작성하여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2022.9)에 수록된 내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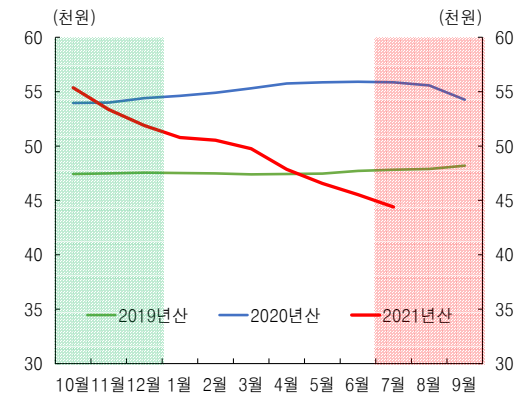
2021년산 쌀 가격이 단경기(7~9월)¹⁾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 산지 쌀(2021년산 정곡 20kg) 가격은 44.4천원으로 지난해 수확기(10~12월) 평균(53.5천원) 대비 17.1% 하락하였다. 과거 단경기에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²⁾가 이따금 있었으나 올해처럼 큰 하락을 보인 시기는 통계청이 산지쌀값조사를 실시한 1986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같은 쌀가격 하락은 쌀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데다, 이를 크게 상회하는 공급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1년 전국의 쌀 생산량은 388.2만톤으로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³⁾」이 종료되고 2020년산 쌀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기대심리 등이 반영되면서 전년대비 10.7% 증가하였다. 또한 2021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6.9kg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쌀 대신 빵류 등을 선호한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배달음식과 밀키트 등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쌀 가격의 급락과 초과 공급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는 산지 유통업체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들의 올해 수확기 신곡 매입여력에도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는 특히 전남지역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남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국에서 논벼 생산 농가, 쌀 재배면적 및

최근 3개년 전국의 월평균 산지 쌀 가격¹⁾²⁾



주: 1) 초록색 음영은 수확기(10~12월), 빨간색 음영은 단경기(7~9월)

2) 정곡(20kg) 가격 기준

자료: 통계청

최근 3개년 전국 쌀¹⁾ 생산량 및 1인당 쌀 소비량²⁾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률 ³⁾
전국 생산량	374.4	350.7	388.2	10.7
1인당 소비량	59.2	57.7	56.9	-1.4

주: 1) 미곡(논벼 및 밭벼) 기준

2) 가구에서 직접 조리하여 식용으로 소비한 쌀의 양

3) 2020년 대비 2021년 증감률

자료: 통계청

1) 단경기란 농산물의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어지는 시기를 의미하며, 쌀의 경우 통상 신곡이 출하되는 수확기(10~12월) 직전인 7~9월을 말한다. 단경기에는 재고량 소진으로 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쌀 평균 가격이 지난해 수확기보다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통계청이 산지쌀값조사를 시작한 1986년 이후 총 8차례(승인통계로서 작성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로는 4차례)가 있었으며, 그 중 2016년 단경기에 쌀 가격이 가장 크게 하락(-8.1%)하였다.

3)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정 및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2018~2020년에 한시적으로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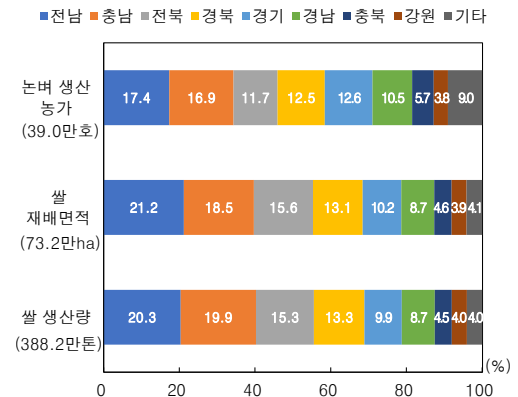
생산량이 가장 많다. 2021년 기준 전남지역의 논벼 생산 농가는 6.8만 가구로 전국의 1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경작하는 쌀 재배면적은 15.5만ha로 전국의 21.2%에 달한다. 여기에서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의 20.3%인 79만톤이 생산⁴⁾되었다.

그러나 올해 쌀 판매가 부진하면서 쌀 최대 생산 지역인 전남은 최대 쌀 재고량 보유지역이 되었다. 2022년 7월말 전남지역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량은 10.2만톤으로 전년동월대비 191.4%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농협 재고량(42.8만톤) 중 가장 많은 비중(23.8%)을 차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전라미'가 '경기미'에 비해 시장에서 기존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⁵⁾ 2017~20년산 기준 전라미(정곡 20kg)는 경기미보다 평균 7.1%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2021년산의 경우 전라미 평균 가격⁶⁾은 46.7천원으로 경기미(53.1천원)보다 12.1%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다.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위기감이 확대됨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에 수매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한편, 전남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도권에서의 홍보·판촉 활동 및 해외 상설판매장을 활용한 쌀 수출⁷⁾ 등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쌀 수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에 시행하였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을 개선·활용하여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한편, 전남 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를 통한 인지도 제고, 쌀 가공품 개발 및 홍보, 수출 장려 등 쌀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역별 논벼 생산 농가, 쌀¹⁾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²⁾



주: 1) 미국(논벼 및 발벼) 기준
2) () 내는 2021년 전국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쌀¹⁾ 재고량²⁾

구분	(천톤, %)		
	2021.7월말	2022.7월말	증감률
전남	35 (14.8)	102 (23.8)	191.4
충남	52 (21.9)	87 (20.3)	67.3
전북	57 (24.1)	80 (18.7)	40.4
경북	25 (10.5)	56 (13.1)	124
경기	23 (9.7)	48 (11.2)	108.7
경남	17 (7.2)	20 (4.7)	17.6
충북	15 (6.3)	15 (3.5)	0.0
강원	9 (3.8)	12 (2.8)	33.3
기타	5 (2.1)	8 (1.9)	60.0
농협 계	237 (100.0)	428 (100.0)	80.6
민간	47	57	22.6
총계	284	485	70.9

주: 1) 정곡 기준
2) () 내는 농협 총 재고량 대비 해당 지역 재고량 비중
자료: 농협 전남지역본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2021년 전남지역 쌀 생산량은 전년(68.8만톤)대비 14.8% 증가하였다.
5)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제공하는 양곡시장 중도매인 직접 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전라미와 경기미(20kg 보통 등급 기준)의 가격을 파악하였다.
6) 수확기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의 평균 가격이다.
7) 전라남도는 쌀 내수 가격 안정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 베트남·미국 등 4개국 9개의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에 쌀 130톤을 2022년 8월부터 긴급 수출하기로 결정하였다.